

銀, 세탁에 어떤 효과 있을까?

살균·소독·탈취 작용 입증

삼성 은나노세탁기, 美 등 해외서 호평

은(銀)이 세탁에 도움을 줄까? 삼성광주전자의 은나노세탁기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 소비자 정보지와 언론에서 잇따라 호평을 받고 있다.

은나노 세탁기는 최근 미국 최고 권위의 소비자 정보지 '컨슈머리포트'의 가전제품 평가에서 인정을 받았다. 컨슈머리포트의 프로그램 리더 버니 디트리크씨는 미국 WNBC닷컴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를 대상으로 테스트한 결과, 은나노 입자가 악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의 성장과 번식을 막아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테스트는 운동선수의 땀에 젖은 셔츠를 일반세탁기와 삼성전자 은나노 세탁기에 각각 넣어 빨래한 뒤 세탁한 옷을 비닐봉투에 넣어 주말동안 승용차 안에 놓아둔 다음 후각이 민감한 실험자들을 선정, 세탁물의 냄새를 맡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버니 디트리크 씨는 "테스트 결과, 일반 세탁기로 빨셔츠에서는 심한 악취가 난 반면 삼성전자의 은나노 세탁기로 빨래한 셔츠의 경우 비교가 안될 만큼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프랑스 시사주간지 르보앵은 지난 6월 "삼성전자 은나노 세탁기는 차가운 물에서도 세탁물 속의 박테리아를 파괴하고 소독하며 탈취작용까지 해준다"며 "세탁속의 의학적 속성이 하이테크와 결합된 최초의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양동상가에 '상인대학' 연다

22~26일 상가 회의실... '돈버는 점포' 강연

시설현대화를 통한 환경정비와 공동상품권 발행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양동북계상가에 '상인대학'이 개설된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상인대학은 상가임원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22~26일 상가 회의실에서 열린다.

'고객은 즐겁고 상인은 돈버는 점포'를 주제로 박광근(유통판매연구소장), 홍계표(전 인천백화점 사장), 박준호(전 정원홈쇼핑 사장)씨가 강사로 나서 ▲의식혁신 ▲친절서비스기법 ▲고객관리기법 ▲상품진열방법 및 상품전략 등 돈버는 방법 등을 강연한다.

중기청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점포를 대상으로 혁신점포와 우수점포를 선정, 사업비와 각종 경영능력 향상기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조제분유 검사 선진국 수준 강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20일 축산식품 전분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영유아용 조제분유에 대한 검사 및 관리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산 조제분유 엔파밀러필에서의 금속성 이물 검출 이후 소비자 단체는 물론 생산업체 및 전문가협의회,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이물 검사에 대한 관리체제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검역원은 또 "최근 국내에서 유통중인 조제분유에서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다는 정보에 따라 국내 및 수입산 영유아용 조제분유 5개사 10품목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모두 적합관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로도복권 (제194회)		팝콘복권 (제17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등위	당첨금액
152023263944	28	1등	10억 4조 634408
		2등	5억원 4조 634409
1등	6개 숫자 일치	3등	1천만원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2등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4등	1백만원 2조 70275
3등	5개 숫자 일치	5등	1만원 2조 633
4등	4개 숫자 일치	6등	2천원 2조 89
5등	3개 숫자 일치	7등	1천원 2조 6

대주건설, 재개발시장 强者 '부상'

북구 풍향구역, 광산구 동·서작 등 잇단 수주 올 광주에서만 5곳... GS와 함께 시장 주도

올들어 광주지역 구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및 도산재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17개 사업장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공사 선정작업을 마치는 등 지역내 재개발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대주건설과 GS건설의 경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 광주 사업장 가운데 5개 사업장의 주관사 및 시공사로 선정되는 등 지역내 재개발시장의 선두주자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일대 동·서작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산구 한사리교외에서 열린 주민총회를 통해 GS건설과 대주건설을 동·서작 재개발의 공동시공사로 선정했다.

이로써 GS건설과 대주건설은 올해 광

주에서만 각각 5곳의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광주의 경우 오는 2010년까지 총 31곳(유보지역 제외)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올들어 17곳의 시공사가 선정됐다.

또 재개발 대상구역인 동구 계림7구역, 북구 북동구역, 광산구 도산7구역 등도 21~24일 주민 총회를 앞두고 있어 지역내 재개발사업은 더욱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들 사업장의 시공사가 선정될 경우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총 20곳으로 늘어나면서 지역내 건설경

기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주건설의 경우 지난 17일 서구 광천구역 재개발의 공동시공사로 선정된데 이어 18일 북구 풍향동구역, 19일 광산구 동·서작구역의 시공사로 잇따라 선정되면서 재개발시장에서의 새로운 강자로 급부상했다.

동·서작구역은 GS건설과 대주건설이 2만9천여평 대지에 총 1천327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다. 풍향동구역은 대주건설, 보성건설, 우방건설 등 3개사가 공동

참여하며, 총 5만513평 대지에 3천16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GS건설도 7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서구 광천구역을 비롯 동구 계림4구역, 동구 산수1동구역, 북구 우산구역, 광산구 동·서작구역 등 5곳의 시공사로 선정돼 국내 재개발수주실적 1위(2005~2006) 업체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이와 함께 금호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광천구역을 비롯해 각각 3개 재개발사업장의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두산건설도 2개 사업장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한편 광주에서는 오는 2010년까지 주택재개발 31곳을 비롯 주택재건축 19곳, 주거환경개선사업 66곳 등 총 140여곳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된다.

대주건설 재건축사업팀 정석환 팀장은 "오는 25일로 다가온 '도시 및 주거환경

지역	구역명	시공사
동구	계림1	남광
	계림3	대주
	화동2	남광
	계림4	GS
	계림5-2	두산산업
서구	산수1동	GS
	화동3	현대산업개발
	화동4	현대산업개발
	광천동	GS, 삼성, 현대, 래임, 금호, 박산, 대주
남구	마복치영	한국
	월산1	현대
북구	월산2	금호, 한진중공업, 한화, 동부, 풀림
	우산구역	대주, GS, 두산
광산구	풍향동	대주, 보성, 우방
	풍향2	금호산업
광산구	산가동	래임, SK, 동부
	동서작	GS, 대주

경쟁비법' 시련을 앞두고 재개발추진위와 각 시공사들의 움직임이 부상한다"며 "계림7구역 등 3개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절차가 완료되면 당분간 재개발 시장도 다소 소강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비타민 여왕' 파프리카 드세요

20일 롯데마트 월드점을 찾은 고객들이 비타민이 다량 함유돼 수험생, 직장인 등에게 좋은 파프리카를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7월 수출 25억 5,000만 달러

반도체·냉장고·유화제품 주도...전년동기비 31% 증가

고유가·환율하락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만)가 발표한 '2006년 7월 광주·전남지역 무역동향'에 따르면 7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8% 증가한 25억5천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12.0%)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수입도 25.1% 증가한 27억5천만달러를 나타내 2억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였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1.6% 늘어난 7억1천300만달러였다. 반도체(31.2%·1억9천700만달러), 냉장고(27.5%·6천200만달러), 컬러TV(22.7%·900만달러), 에어컨(69.1%·700만달러) 등이 호조였고 지난해 부진했던 승용차(9.2%·1억5천900만달러), 타이어(8.8%·8천300만달러)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작년의 49.4%(전년 대비), 2004년의 44.2%보다 낮은 것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전남의 수출은 18억4천100만달러로 지난해보다 41.7% 증가했다. 경유(48.0%·1억6천400만달러), 제트유·등유(146.0%·1억4천900만달러) 등의 원유 가공제품과 열연강판(71.0%·1억7천

200만달러), 선박(223.6%·1억6천3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고영만 지부장은 "지역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금융 및 광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지변화 확대와 인도·러시아·중남미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200만달러), 선박(223.6%·1억6천300만달러) 등이 수출을 주도했다. 고영만 지부장은 "지역수출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금융 및 광산업 등 지역 특화산업 지원강화를 통한 수출지변화 확대와 인도·러시아·중남미 등으로의 시장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돼지고기·채소류 수입 급감...가격 급등

올해 들어 돼지고기와 채소류 수입 실적이 저조해 가격 급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청이 20일 발표한 돼지고기·과일·채소류 수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1~7월 돼지고기 수입량은 총 18만8천848t으로 작년 동기보다 18.9% 늘었다.

이는 작년의 49.4%(전년 대비), 2004년의 44.2%보다 낮은 것으로 3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특히 전체 돼지고기 수입량의 26.7%, 5만387t을 차지한 삼겹살의 경우 증가율이 9.1%에 불과, 2005년(24.4%)과 2004년(38.6%) 증가율을 크게 밑돌았다.

돼지고기는 주로 미국(27%), 캐나다(19%), 칠레(9%) 등 미주 지역에서 수입됐고, 삼겹살은 벨기에(22%), 칠레(16%), 프랑스(14%) 등 유럽 지역이 주요 수입대상국이었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니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보현산업(주)	자재관리, 납품, 영업관리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8/23	062-956-9600
가기이(주)	사무실 단순경리	초대졸/경력무관	1000~1200	08/25	062-943-9904
㈜스카우트(주)	2고대 계약직 냉고조립 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8/25	062-514-6464
동일산업(주)	경리, 회계, 결산, 세무	고졸/경력2년	1400~1600	08/25	062-941-7891
케이앤	경리, 고객관리, 사무관리 사원	고졸/경력1년	1000~1200	08/25	062-430-3366
덕만플러스	웹디자인(쇼핑몰 및 홈페이지제작, 제품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6	062-603-3997
정주건설(주)	토목기사 경력자우대	초대졸/경력2년	2800~3000	08/26	062-430-3233
현대산업(주)	고려시멘트 계열 레미콘사 신입 경력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28	062-519-1440
㈜창성디자인	인테리어 설계	초대졸/경력1년	1400~1600	08/31	062-431-1377
㈜씨케이	석유화학(resin)영업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951-1581
㈜HK	생산/설비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953-8312
human 인터리어	인테리어 시공분야 경력자/신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432-3370
동원건설(주)	AS, 시스템관리, 서버관리, 웹프로그래밍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606-6552
디앤엘기획	영업사원 및 편집디자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8/31	062-268-2409

(광주지프코아 512-6210 제공)

대기업·금융사 등 '괜찮은 일자리'

7년새 27만 4,000개 줄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 美 앞질러

양질의 일자리에 해당하는 대기업·공기업·금융회사에서 일자리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적인 일자리 창출은 소득수준이 낮은 부문에서 주로 이뤄져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선진국 중 최고인 미국보다 높아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일 노동부 고용보통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30대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공기업, 금융회사 등의 종업원 수가 1997년 157만9천명에서 2004년 130만5천명으로 27만4천명이 줄었다고 밝혔다.

전체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134만명이 증가했는데도 안정적인 고용과 상대적인 고임금, 그리고 경력개발 기회가 보장되는 이들 주요 기업부문의 '괜찮은 일자리'는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주요 기업부문의 종업

원 수가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에서 5.8%로 낮아졌다. 취업자 100명 중 6명 정도가 그룹 계열사·공기업·금융회사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이들 기업의 종업원 수는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34만3천명으로 급감한 뒤 2000년 132만명, 2001년 126만6천명, 2002년 124만5천명 등으로 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감소세는 계속됐다.

분야별로 보면 30대 그룹 소속 종업원 수는 2000년 69만5천명, 2001년 67만1천명, 2002년 64만5천명, 2003년 65만1천명, 2004년 67만2천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집단은 경기 양극화 현상 속에서 경영 호조세를 구가했었다.

공기업과 금융업도 마찬가지로 ▲2000년 23만3천명, 39만2천명 ▲2001년 21만3천명, 38만2천명 ▲2003년 21만7천명, 40만3천명 ▲2004년 22만2천명, 41만1천명 등으로 고용을 거의 늘리지 못했다. 연합뉴스